

세계 속의 출판,
출판 속의 한국을
진단한다

한국출판포럼 2004



도서정가제 시행문제로 유통구조의 복잡화, 독서
율 감소로 위기에 놓인 한국 출판계를 진단하고
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한국출판포럼 2004'가
지난 달 18일부터 이틀간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
회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됐다.

'멀티미디어 시대의 출판진흥방향과 선진
유통기술'을 주제로 (사)출판유통진흥원
이 주최하고 문화관광부가 후원하는 이번
포럼에는 미국 독립 출판인 앙드레 쉬프랭
을 비롯, 일본의 '책과 컴퓨터' 총괄 편집
장 가이타로 츠노, 학교출판의 집 대표 베
들링 괴링, 전 프랑크푸르트도서전시회사
대표 페터 바이트하스, 서울산업대 백옥인
교수, 한국출판학회 이종국 회장, 춘천교
대 김상욱 교수 등 국내외 출판과 유통 및
독서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이들은
독서, 출판, 유통의 세 분야에서 총 13개의
주제발표를 하고 토론과 대담을 통해 의견
을 공유하며 각 나라의 사례를 들어 한국과
세계의 출판현실을 진단했다.

독서분과에서는 프랑스의 독서교육
과 한국 독서운동의 현황과 방향, 아울러
디지털시대에 봉착한 종이책의 위기를 진
단한 패널토론이 진행됐다. 특히, 차미래
세계일보 논설위원은 책을 읽지 않고 사지
않는, 일반적인 활자문화의 위기를 진단하
며 디지털과 출판업을 동시에 성장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물었다.

이에 대해 가이타로 츠노는 "책을 안
읽는 것은 일본도 마찬가지"라고 지적, 디
지털과 컴퓨터문화로 접어든 탓도 있지만
극도의 소비사회가 진행되고 있는 점을 들
어 "무엇보다 책을 읽기 위한 기술을 습득
하고 다중적 세계인 인터넷에서 자신이 필
요한 것을 정확히 추출해 독서할 수 있도록
방대한 DB의 공간을 충분히 이용해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한국출판마케팅연구소
한기호 소장은 과거 책은 객관적 정보만을
제공했으나 현재는 역사적인 맥락을 잡는
도구로서 사용된다고 밝히고 디지털과 종
이책의 행복한 만남은 분할과 통합의 장점
을 동시에 지니고 있는 '검색형 도서'가 만
들어갈 것이라고 했다.

이번 포럼에선 ▶디지털 복제시대의
출판과 다매체시대의 출판학 연구 ▶세계
문화산업에서의 최근 출판동향과 도서전의
발전 ▶독일 도서정가제의 역사 및 체계·영
향 ▶175년 역사의 독일도서유통과 한국
출판유통현대화 ▶ISBN 개정준비 ▶출



최태경 (사)출판유통진흥원 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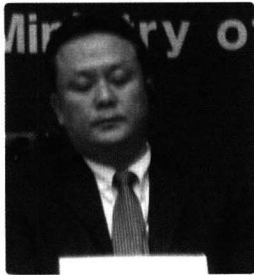
앙드레 슈프랭_ 미국독립출판인



김상묵_ 춘천교대 교수



백옥인_ 서울산업대 교수



이중호 (주)복센 물류산업본부장

판유통에서의 RFID 적용영역과 일본의 사례 등에 관한 주제발표가 이어졌다.

한국의 출판유통 현대화...

고비용, 저효율 해소하는 효과적인 유통경로

복잡하고 비효율적인 도서유통 구조로 인해 불필요한 재정과 노력을 최소화하기 위해 출판유통현대화사업이 실시하고 있는 주요 사업을 소개했다. (주)복센 물류사업본부 이중호 본부장은 “한국 출판산업이 발행 종수나 부수, 문화지식산업으로서의 성장은 이뤘지만 출판물의 공급과 소비 문제에 있어서는 낙후된 실정”이라고 지적하며 “재정과 노력의 부족으로 구체적인 방안을 세우지 못하는 현실 속에서 출판유통현대화사업은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출판유통현대화사업은 출판유통산업에 대한 표준화를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모색해 유통 도서DB 및 정보 제공 시스템 구축, 출판사용 표준 MIS와 서점용 e-POS의 개발, 전자상거래시스템을 활발하게 가동하는 등 구체적인 사업을 펴나가고 있다. 이런 시스템이 전격적으로 확산되면 도서정보와 제공에 있어서 판매가 증대되고 정보가 공유됨으로써 중복 업무를 줄이고 관리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기대가 크다.

세계화와 출판

지적 서적보다 상업적 출판물 증가 우려

전 세계 출판사가 세계 굴지 복합기업들의 매수 대상으로 부상하고 있는 현실이다. 미국도 출판의 본질적인 면보다 이해관계에 따라 좌우되는 출판산업의 부작용이 여전하다. 앙드레 슈프랭은 한국도 이러한 경향이 적지 않을 것이라며 “외국인에게 소유권이 넘어가는 현상 자체가 해로운 것이 아니라 대형 복합기업에 넘어갈 경우 매출 높이기엔 급급해 상업성이 강한 출간물만이 살아남을 것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그래서 베스트셀러만 서점을 차지하고 번역되며 자금력과 수익성이 미비한 중소

출판사가 문을 닫는 현상이 나타난다. 지적서적의 출판이 감소하고 있는 것이다. 과연 어떤 책이 돈을 벌어들일 것인가는 세계화에 접어들어 출판산업의 중요한 문제다.

우리나라는 아직 세계적 추세의 영향을 많이 받지 않고 있지만 현재 미국과 유럽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태에서 많은 교훈을 얻어야 한다. 슈프랭은 “우수한 번역물들이 각광받고 있는 요즘, 미국 내에서는 아시아계 이민자들이 많아지면서 아시아로부터 나오는 책을 번역한 것이 많다”며 “한국도 우수한 소설들을 번역해 전 세계에 알려야 할 시점이다”고 덧붙였다.

디지털시대, 책과 독서

종이책과 전자책의 융합, DB의 적절한 활용

디지털 시대를 맞아 변화하는 책과 독서의 개념을 냉철하게 지적했다. 가이타로 츠노는 “복수의 종이 위에 인쇄된 텍스트를 하나로 묶은 것이 지금도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책’의 정의였고 이런 책의 페이지를 넘기며 있는 것이 ‘독서’였다. 그러나 20세기 중반, PC가 등장하면서 인쇄 이외의 방법으로 문자를 쓰고 읽을 수 있게 됐다”며 책과 독서의 확장된 개념을 비교·설명했다.

1979년에 등장한 소니 ‘워크맨’은 이미 음악영역에서 ‘거리를 확보하면서 음악을 듣는다’는 인식을 퍼뜨렸다. 사전도 가능할 것이라는 생각에 소니는 1991년, 3.5인치 스크린에 여러 권의 사전을 담은 ‘데이터 디스크맨’을 출시한다.

이런 기술 성공은 일반 책에까지 확장돼 1993년에는 ‘디지털 북’이, 올해 초에는 ‘리브리에’와 ‘시그마 북’과 같은 다양한 독서단말기가 출현했다. 그만큼 종이책이 전자책으로 대체된다는 기대가 컸지만 이러한 시도는 모두 실패했다. 츠노 편집장은 그 원인에 대해서 인간의 마음이나 신체가 디지털 독서에 쉽게 적응하지 않는다는 점과 과대광고와 폐기처분 등 새로운 독서단말기를 개발해 판매하는 방식이 너무 성

급하고 무책임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종이책과 전자책을 애매하게 융합하기보다 둘의 차이를 인정하고 구분해 공존시켜야 하며 인터넷을 통한 데이터베이스 검색은 새로운 형태의 독서임을 인식하고 대처방안을 모색해야 하다고 밝혔다.

디지털 복제시대의 출판

새로운 지식현상에 맞춘 대처 필요

디지털 복제는 과거 기계복제 시대의 지식과 문화의 생산을 담당하던 출판의 영역에 변화를 몰고 왔다. 이러한 새로운 생산조건에서 지식과 출판은 어떤 방향으로 변화하고, 그에 대한 대처는 어떻게 해야 할까.

서울산업대 백옥인 교수는 “네트워크 온라인 사회에서 출판은 더 이상 지식생산의 핵심이 아니다”고 말하고 지식의 시간과 장소의 제약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소비자도 지식의 소비와 생산을 겸비한다고 진단했다.

현재는 지식의 개방-폐쇄, 수행-실천, 상품-탈상품, 개인성-사회성 간의 긴장과 대립이 만들어지는 과도기에 있다. 지식과 정보를 혼합하는 인터넷은 지식의 정보화와 정보의 지식화를 동시에 촉진하고 인터넷으로 인해 지식생산자의 범위가 넓어져 얼마나 어느나에 따라 전문가가 결정된다. 또한 네트에 연결된 사람이면 누구나 글쓰기에 참여할 수 있어 글쓰기의 위상도 크게 바뀌었다. 인터넷에 올라오는 글들이 말과 글을 융합하는 새로운 성격인 ‘타에’ ‘말글’ 혹은 ‘글말’이라는 제3의 새로운 미디어가 등장하기도 했다. 백 교수는 이렇듯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지식현상을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던 지식과 출판 개념으로 재단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취재 | 홍이현 기자 · 사진 | 김태경 객원기자

● 도서정가제, 독일에선 어떻게 하나

독일은 1988년 이후 지금까지 서점과 출판사의 계약에 따라 가격고정제도를 실시해 오고 있다. 우리나라의 도서정가제와 같은 맥락이다. 이는 대형서점과 백화점 등이 베스트셀러 및 기타 최신 서적들을 더 낮은 가격에 판매하는 경우로부터 보호하고 서적 판매업체들의 일정한 이윤을 보장받을 수 있게 한다. 동시에 대형 서점과 소형 서점 간의 균등한 경쟁을 조성한다.

가격고정제도가 시행되지 않으면 가격전쟁은 불가피하다. 독일에서 《해리포터 5》 영어판이 출시됐을 때, 외국어로 쓰인 서적은 가격고정제도의 영향을 받지 않아 각 소매상들은 자유롭게 가격을 책정했다. 번역서적은 제외되지만 이러한 가격고정제도 덕분에 독일은 3대 유통 분야가 꾸준한 발전을 거듭했다. 신진작가와 비인기 분야를 다루는 지식인·작가들의 작품을 출판사들이 큰 부담 없이 경제적이고 정당한 방법으로 내놓을 수 있어 다양한 서적이 빛을 볼 수 있게 됐고 틈날틈 소매망으로 소형 서점들도 경쟁에서 살아남을 기회를 부여받게 됐다. 또한 단시간 내에 서적 수요를 충족하게 하는 가격관리를 통해 소매상들이 다양한 서적을 공급할 수 있는 덕에 전문 도매망도 활성화됐다.

독일의 가격고정제도는 정치 및 법적 문제를 극복하고 경쟁이 지배하는 자유시장체제와 항상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서 100년 넘게 지속해 왔다. 우리 출판전문가들도 이같은 독일식 가격고정제도를 하나의 훌륭한 모델로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받아들였다.

● 도서산업 공급체인 : 영국의 사례와 전망

도서산업의 공급망 구축활동에 있어 선구자 역할을 담당해 온 영국의 도서산업은 출판물 출시 및 판매량이 최고수치를 기록하고 있고 현재도 국제미디어복합기업의 각축장으로서 출판사와 판매상, 서점 및 주요 도매상의 활동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공급망은 제품정보, 전자상거래, 반송관리, 무선주파수인식(RFID)의 네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정확하고 적절한 제품정보야말로 효율적인 공급망 구성의 핵심요건이다. 영국의 공급망 기구인 BIC는 이러한 공급망 향상의 원동력으로 작용해 왔다. 전자상거래의 사용 빈도를 높이고자 올해 기획한 e4books프로젝트도 2008년 5월 1일을 목표로 전 도서업체와 거래업체의 전자 메시지 교환을 꾀하고 있다. 또한 반송 및 인가의 전자화에 앞장서기 위해 올해로 5년째 실시하고 있는 이 계획은 이미 출판사와 서점의 긴밀한 연결망을 확보하고 있다. 내년 초면 표준공정으로 확립, 나아가 국제적으로도 수용될 전망이다.

현재 BIC 컨설턴트인 피터 킬본은 RFID의 발전이 향후 도서거래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현재는 RFID 표시가 저가 상품에 붙이기에는 고가이긴 하지만 도서관 분야에서 꾸준히 성공해 왔듯이 도서거래방식에서도 혁명을 가져와 공급망을 통한 즉각적 생산시스템을 확립시킴과 동시에 기존 공급망을 대체할 전망이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이러한 변화에 미리 대비할 수 있는 도서산업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왼쪽부터 책과컴퓨터 총괄편집장 Kaitaro Tsuno, Breal출판사 대표 Bertrand Pirel, 책읽는사회만들기 국민운동 공동대표 도정일, 대학협력 및 프랑스 서적 담당관 Pascal DAYEZ-BURGEON, 세계일보 논설위원 차미래, 한국출판마케팅연구소 소장 한기호

